

별무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박현수

별무리학교가 설립 된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60명의 입학생을 맞이할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무리학교의 실체가 없었던 2011년 그해! 학교 건물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중학교 40명 의 정원을 모두 채우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건축, 교사 모집, 학생 모집 과 정 하나하나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육적 사명 을 감당케 하고자 우리 별무리학교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12년 입학했던 학생들이 9학년이 되어 지금 인도에서 해외 이동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별무리 고 등학교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교사들을 선 발하여 연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고등학교 건축도 시작됩니다. 또한 별무리학교 연구소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는 고등학교 학력인가 문제를 놓고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4년전에 별무리 학교 개교 준비를 할 때와 지금 가장 다른 것은 별무리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이 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방향은 다분히 우리 재학생들의 특성 에 가장 알맞은 교육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 절한 바램은 별무리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우리 별무리 재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별무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별무리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 한 우리 별무리 가족들이 조금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등학교를 준비하 고자 합니다.

1. 별무리 고등학교 학력인가 추진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학력인가를 받기 위해 작년부터 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학력인가를 추진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 들의 선택폭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학력인가를 추진해 보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의 철 학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대안학교법의 취지를 교육청에서 인정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면담을 할 때만도 학력인가 절대 해줄 수 없다던 태도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학교의 학력인가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충남에는 10여년 전에 특성화 대안학교로 설립 허가를 내주었던 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인가를 받은 후 학교 운영을 엉망으로 하여 분규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 학교들로 인해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추진하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특성화 대안학교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역시 처음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지만 몇 년 후에 학교가 어려워지면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설득하고는 있지만 워낙 두 학교에 대한 상처가 커서인지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지난주에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계장, 담당 주무관, 지역교육청 과장님과 저 그리고 우리 학교를 도와주고 있는 도의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과장님이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계속 요구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최소한 학생들이 선발이 되지 않아도 은행예금 이자로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예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확산해 보면 약 40억 정도의 금액이겠지요. 적어도 이 정도의 자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학교로서 인허가를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거의 좁혔지만 이 부분 만큼은 쉽지 않네요.

제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주에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학력인가를 받았던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5년 동안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만에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작년에 학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최적의 조건으로 인가가 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별무리학교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생각과 일치한 생각이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력인가와 상관없이 우리 별무리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들을 따라 진로 및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고자 마음먹은 우리 제자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과정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2. 고등학교 건축 추진

현재 고등학교 건축을 위한 토목과 건축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1차 설계를 하였으나 마련된 부지가 농지여서 유치원 건물로 밖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금산군청과 협의 끝에 마을 텃밭으로 쓰고 있던 토지에 연수원으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 지금은 연수원으로 설계 변경을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 일정이 한 번 변경되어 시간이 빠듯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겨울이 오기 전 12월말까지는 건축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건축 할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과 건축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비

3월 한달 별무리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10개의 학교를 방문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진로지도, 졸업생들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들을 리서치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과정 준비위원회에서 의논했던 내용들과 이번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과 3년간의 교육과정을 세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5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세부 설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말 또는 6월 초에는 학부모님들과 1차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6일이 학부모 공개 수업일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별무리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우리 별무리학생들과 가정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전에 이곳 금산에 별무리학교를 세우셨듯이 고등학교 설립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